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형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아주대 석좌교수

언제부터 ‘떡방’이 이렇게 유행한 걸까. 맛집 탐방이 대세고 멋진 셰프는 만인의 로망이다. 삶의 방식과 우선순위의 변화는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 곁에 나타난다.

그리움으로 추억하는 나의 유년기는 색다른 장면으로 가득하다. 떡을 게 풍족하지 않은 시절이었다. 떡기도 힘든 쌀로 술을 만드는 건 큰일 날 일어서 동네에서도 가끔 밀주를 만들다가 적발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20세기 전반부의 미국 대공황 때 금주령이 선포된 후에 알카포네 같은 갱단이 밀주 유통으로 부를 축적했던 걸 연상시킨다.

학교 급식이 없던 시절이라서 아이들은 매일 도시락을 싸 왔는데, 학교에서도

익숙함을 거부하기

시락에 보리가 충분히 섞였는지 ‘도시락 검사’를 받았다. 보리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은 판에 윤기 나는 쌀밥을 먹는 것은 부도덕한 일로 여겼으니까. 장이 있으면 뽕이 나오는 법이다. 도시락 상충부에 보리를 얹게 도포하여 검사를 통과하는 기술은 촉보가 되어 전수됐다.

요즘 어디 가서 이런 보리 혼식 얘기를 꺼내내면 끈대 소리 듣기 딱 좋다. 진부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공포심에 눌린 아재와 아주매는 그래서 이런 ‘부족했던’ 시절 얘기를 피한다. 가르치려는 고질병이 또 족했다는 소리까지 들으면 큰일이다. 세상에는 시류나 유행이니 하는 게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신세대에게 이런 예전 얘기는 진부하지만 하러나 생각하던 차려서 영화 ‘국제시장’의 성공은 사뭇 놀라웠다. 영화평론가들도 우호적이지 않았는데, 파독 광부와 간호사를 주제로 ‘공상맛은 얘기는 진부하다’는 주류 프레임과 정면충돌했다. 지금 신세대에게 이런 시절을 살던 청춘의 공명함이 소통된다는 게 놀랍다. 그들에게도 예전 것에 대한 이해의 시선이 있는 건가.

그렇다고 신세대에게만 기성세대들이

해라라는 짐을 지울 수는 없다. 이질적 요소들 가진 두 그룹 간의 이해는 쌍방향이어야 한다. 변화의 한가운데서 몸으로 변화를 맞는 세대와 오랜 세월 익숙해진 삶의 방식을 지닌 채 생경한 변화를 관찰하는 세대의 상호 이해가 쉬울 리 없다. 이래저래 구세대도 끈대 탈출의 비결을 고민하는 지경이 됐다. 끈대라는 말은 꼬장꼬장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불통의 아이 콘이 됐으니까.

이럴 때 떠오르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유효함이 증명된 비책이 담긴 말이다. 옛것을 지킨다는 온고는 알겠는데 새것을 아는 지식은 쉽지 않다. 눈을 바짝 뜨고 시대의 변화를 관찰해야 하지만, 이걸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군자선가어물(君子善假於物). ‘순자’(荀子)에 나오는 말로, 군자는 물건을 잘 다룬다는 의미다. 요새말로 하면 군자는 ‘기크’(geek)에 가깝다는 말이라? 무릇 군자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니, 얼리어답터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얼리어답터는 흔히 새로운 기술과 상품을 전위적으로 채택하고 실험하는 사람

을 일컫는다. 이런 사람은 새로 나오는 장치들에서 이전에 없었던 아이디어를 보고, 그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현해 내기 위해 필요했을 혁신을 통찰한다.

예전에는 한 물건을 오래 쓰는 것이 미덕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근검절약만으로는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새로운 혁신도 그로부터 탄생한 상품이 소비되지 않으면 사그라지니까,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정말로 혁신을 만들어 낸 건 손에 찌지 않는 예쁜 기계가 아니었다. 변화의 요체는 아이폰즈와 애플이 보여 준 연결된 세계의 비전이었다.

CD 한 장의 열 몇 곡을 다 사지 않아도 좋아하는 노래 하나를 아무 때나 구매해서 들을 수 있게 된 변화는 개인의 선택과 개성의 존중이라는 가치의 구현이었다. 애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얼리어답터들을 등에 업고 낡은 주류 프레임은 순식간에 뒤집었다.

새로운 것을 써 보고 그 신기함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세상 변화의 실마리를 보며 혁신을 소비하고 지원한다. 익숙함에 안주하기를 거부하는 얼리어답터들을 응원하는 이유다.

社說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 정부가 발목 잡아서야

정부는 한때 심각한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려해 왔다. 새로운 공장 부지 매입이나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균형 발전과 인구 분산 효과 등을 거두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그것도 옛날 일이 되고 말았다. 정부가 거꾸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방형 기업이 갈수록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전 업체의 유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광주·전남 등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은 매년 32.3%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광주는 지난 2011년 단 한 곳만이 수도권에서 옮겨 왔고 이후에는 전무하다. 같은 기간 전남은 30곳으로 집계됐는데 2011년 이명박 정부 초기에 집중되다 2012년 7곳, 2013년 4곳, 2014년부터는 매년 1곳씩이다. 저조하기는 광주와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 기업이 줄어든 이유는 이들

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줄어든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박근혜정부 이전까지는 새로운 생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으로 비중이 큰 입지보조금을 많이 지원했지만, 이후 설비투자 보조금에 초점 맞춰 효율도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이명박정부는 과밀억제·성장관리 권역 내 기존 공장 증설을 허용하고, 박근혜정부는 규제 프리존에 수도권 낙후지역 개발 사업을 포함시켜 제한을 풀어 버렸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수도권 살찌우기여서 기업들은 여건이 좋은 수도권을 마다하고 굳이 지방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됐다. 사실상 정부가 지방으로 향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규제를 당장 원상대로 돌려야 한다. 기업의 지방 이전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시급하다.

막 오른 충청축제 흥겨운 시민 한마당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최우수축제인 ‘추억의 충청축제’(29일~10월3일까지)가 어제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개막했다. ‘아시아 최대 길거리 문화·예술축제’를 지향하는 충청

축제는 올해 ‘추억을 넘어 미래로’라는 주제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주목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행사는 지난해 문화전당 공식개관 이후 처음 치러지는 것으로 불거리가 더욱 풍성해졌다.

국내 최대 시가행진으로 꼽히는 전국거리퍼레이드 경연대회에서는 빛과 조명을 활용한 ‘야간 퍼레이드’가 새로 도입돼 눈길을 끈다. 각 동별로 주민과 학생이 콘셉트를 정하고 구조물을 만들어 페이퍼아트에 참가, 참여와 소통의 마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큰 인기를 모았던 외국인 경연 프로그램 ‘아시아 팝 페스티벌’은 ‘월드 팝 페스티벌’로 확대·개편돼 13개국 15개 팀이 고국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겨룬다. 행사 기간 금남로 일대에서는 매

일 공예체험, 과학체험, 추억놀이체험 등 20여 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문화전당 북관전시장 광장은 ‘도심캠핑장’이 조성되기도 했다.

충청축제가 명실상부한 성공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예술 행사와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높여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해서 오는 광주천변 광주공원 앞에서 개막하는 ‘영호남문화대축제’ 등 각종 행사에도 발길이 닿을 수 있도록 관객들 동선을 잘 필요로 있다. 외지 관객들이 불거리를 찾아 광주에서 오래 머물게 되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행사 주제인 광주 동구청은 무질서와 바가지 상권이 발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축제의 성공요건은 무엇보다도 지역민들의 폭넓은 참여라는 점을 감안해 시민들의 흥겨운 한마당은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無等鼓

우리 문화계 가운데서는 이유도 알려지지 않은 채 해외로 반출된 뒤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적지 않다. 조선 문인(文人)의 대표작으로 국보 180호인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歲寒圖) 역시 일제시대 일본에 반출됐었다. 여러곡절 끝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제주에서 귀양을 살던 추사가 59세

때인 1844년, 자신을 보살펴 준 제자 이상적으로 고마운 마음을 담아 그려 준 세한도는 그 후 100년 가까이 자취를 감췄다가 1940년 대 중국 북경의 골동품상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우연히

수월관음도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한반도를 식민지화하기 위해 폐가망신하는 화투를 보급하고, 그들의 문화를 은연 중에 주입시키려는 의도가 100여 년에 걸쳐 실현된 셈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방관한 채 아직도 화투놀음을 즐기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나는 화투를 치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화투놀음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화투를 한두, 개벽 화투, 홍실정실 우리화투, 독도사랑 화투 등 우리 문화와 어울리는 화투를 만들었으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나 사회단체에서는 일본풍의 화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범국민적 운동을 펼쳐야 한다. 만약 화투를 없앨 수 없다면 한민족의 문화와 정서에 맞는 그림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하여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문화를 정립하여 올바른 놀이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전남 진도 출신으로 고서화의 대수장이자 감식가였던 소전(素堅) 손재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세한도 귀국 작전이 시작된다. 세한도가 후지즈카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손재형은 급거 동경으로 달려갔다. 당시 동경은 연합군의 공습이 밤낮으로 이어져 사지(死地)나 다름

다. “당신의 열성에 젖소 가져가시오.” 얼마 뒤 후지즈카의 집에 폭탄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이를 생각할 때 손재형이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세한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최근 한국콜마의 운동화 회장이 일본에 반출됐던 고려 불화 ‘수월관음도’를 고가에 매입,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 관음도에 담긴 옛 고려 장인의 정성과 숨결이 오랜 여행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셈이다. 문화재에는 한 민족의 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다. 민족정신 수호에 앞장설 또 다른 윤 회장의 출현을 기대한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종교칼럼



조발гни 사신동성당 주임신부

백남기 농민의 죽음

표한다. 오래된 전쟁 중에 죽음에 대해서도 무덤은 매년 사과를 하는데 사람이 죽었다고 무조건 사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현 교총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회칙에서 이런 말을 한다. “때때로 우리는 인간의 그 어떤 뛰어난 덕도 부인하는 편견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동등한 존엄을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인간 이외의 생물종 보호를 위한 투쟁에 더 나섭니다.

우리가 다른 생물종들을 무책임하게 다루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불평등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떤 이들이 자신을 다른 이들보다 더 존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들이 자신을 마치 더 많은 권리를 지니고 태어난 다른 이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여전히 묵인되고 있는 것입니다.”(찬미받으소서, 90장)

백남기 농민은 농민이 살아야 한다는 절박한 소리를 외치기 위해 자신의 땅을 떠나 서울에 올라갔다. 20년 동안 변함 없는 쌀값을 대통령의 공약대로 지켜달라고 한 것뿐이다. 아무 무기도 듣지 않

는 농민에게 경찰은 물대포를 쏘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애도하는 시민이 많다. 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폭력에 시민들이 맞서는 이유는 분명하다.

“인간은 경제적 평가의 측면에서만 이해될 수 없으며 단순히 어떤 계급에 속하는 지에 따라서 정의될 수 없다. 만일 인간이 그의 언어, 역사 그리고 실존의 주요 사건들 안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로서 출생, 사랑, 노동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문화권 내에서 놓여 있을 때에 그는 더욱 완전히 이해된다. 모든 것 중 가장 위대한 신비, 즉 하느님의 신비 앞에서 있는 인간이 모든 문화의 핵심을 차지한다”(요한 바오로 2세, 백주년, 1991, 24장)

경찰과 국가가 이런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아무런 예도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죽음을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부검을 하려고 한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명백함에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예들러 말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 상황을 바라본다면 약자에 대한 강자의 싸움이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곧 더 큰 수용과 사랑과 보살핌을 요구하는 생명이 쓸모없는

생명이라고 여기거나 참을 수 없는 집으로 생각하며, 따라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러한 생명을 거부합니다. 병이나 장애 때문에도 더 간단하게는 단지 존재 자체가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의 복지나 생활양식을 위협하는 사람을 거부하거나 없애 버려야 할 적으로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일종의 ‘생명에 대한 음모’가 이루어집니다.”(요한 바오로2세, 생명의 복음, 1995, 12장)

사람이 죽었고, 그 가족이 아파하고, 모든 시민들이 안타까워하는 지금 국가는 시민들과 건널 수 없는 강에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국가는 시민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다. 한 농민이 죽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고개 속 여 하늘나라에 잘 가시라고 기도한다.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시민을 지키고, 보호하고, 공동선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들을 막고 통제하고 힘으로 장악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백남기 농민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한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

기고

화투를 바꾸자



김한호 문학박사·수필가·전 고등학교 교장

마작, 트럼프, 화투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시대에 따라 변천해왔다. 그 중에서 화투는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성행하고 있는 놀음으로 민화투, 삼봉, 육백, 셋다, 도리짓고 땡, 나이롱 뽕 등이 있으나 고스톱(go-stop, 고도리)이 가장 인기가 많다. 고스톱은 각종 모임이나 명절에 세 사람만 모이면 할 수 있는 놀음으로 최근에는 온라인 게임도 생겼다.

일본에 화투가 들어온 것은 16세기경 포르투갈 선교사가 가져온 카드게임인 ‘가투타’였다. 그러나 막부 시대에 카드놀이를 금지하자 화투의 원조인 ‘하나후다’(花札)를 만들었다. 우리나라에는 19세기 말 대마도 상인들에 의해 부산에 처음으 화투가 유입되었다.

그런데 48장의 화투 속에는 일제가 조선의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저항의식을 왜하시키려는 숨은 음모가 있다. 화투에 그려진 그림은 일본을 상징하는 민속화로 일본 고유의 세시풍속, 기원의식, 월별

축제 등 일본혼이 그대로 담긴 축소판이다. 그래서 일제는 화투를 널리 퍼뜨려 놀음판에 빠진 조선사람들이 민족혼을 상실하여 일제에 투쟁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러한 화투를 우리 민족이 100여 년 동안이나 즐기고 있으니 부끄러운 일이다.

화투에는 일본의 상징인 사쿠라와 후지산, 10세기 일본 서예의 창시자인 오노 노도후가 그려져 있다. 화투의 그림은 월별로 꽃나무와 짝을 이루는 동물과 인간이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를 금지하자 화투의 원조인 ‘하나후다’이며, 5월은 ‘난초’가 아니라 ‘창포’이다. 또한 일본의 명절인 1월 설날, 3월 사쿠라 축제, 8월 오봉과 달구경, 11월 어린이 명절, 12월 세모에는 광(光)이 들어 있다. 8월과 12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띠’가 있는데, 일본 전통시인 하이쿠(俳句)를 적는데 사용하는 단자꾸(丹耬)라는 종으로 일본의 풍류를 상징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수진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간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제부 220-0663 (대표 FAX 222-4918)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9500)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